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흡연관련내용 분석

황명희송* · 서미경 · 서홍관 · 명승권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본부 건강증진기획/평가

연구목적: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담배 또는 흡연과 관련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교과서를 이용한 사회/심리 흡연예방 프로그램 구상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06년부터 2007년 학교에서 사용하는 총 111권의 교과서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흡연교육에 관한 내용적인 요소를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도록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인 질병과 조기사망에 관한 내용이 총 12교과목 중 10번에 걸쳐 가장 많이 반복 게재 되었으며, 니코틴으로 인한 중독성은 9번이나 강조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제지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실린 교육적인 내용을 질병 중심의 의학적인 지식 부분과 담배 광고, 친구들의 권유에 거절할 수 있는 사회영향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흡연 관련 교과서는 폐암 등의 장기적인 질병과 사망, 중독성, 담배의 유해물질, 청소년흡연과 간접흡연에 따른 신체상의 피해를 기술한 의학적인 내용이 72%를 차지하였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흡연예방교육내용에 대한 지침방안, evidence-based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Project Toward No Tobacco Use와 Life Skills Training은 단지 6~17%의 내용만이 흡연에 따른 개인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흡연을 조장하는 사회영향적인 요인에 저항할 수 있는 기술 함양 - 담배광고 분석, 거절 기술, 비 흡연자를 위한 옹호 활동 등을 더욱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흡연예방 교육적인 내용들이 의학지식적인 내용으로 주를 이루는 것은 아마도 체육, 과학, 생물 등의 전통적인 과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 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흡연을 사회적, 도덕적, 생활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에 도입할 경우, 사회, 도덕, 윤리 등의 여러 교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과들이 이미 사회/심리 흡연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이미 다루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흡연관련 교과와 핵심단원과약을 통하여 밝혀졌고 다만, 담당교사들이 흡연과 연계하여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 활용성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서 여겨진다.